

■ 韓銀, 광주·전남 1분기 소비자 동향 조사해보니

▲CSI(소비자 심리지수)=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으면 경기가 6개월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 구입 열기 꺾였다

아파트 등 구입의사 소비자 비중 2년만에 최저 생활형편 6개월 전보다 어려워...경기 회복 지연

향후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의 비중이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부동산 구입 열기가 한층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예정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급감한 반면 토지와 상가, 단독주택 비중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구매패턴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투자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구입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침체됐던 토지, 단독주택 등으로 매기가 이전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3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2007년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 비중은 전분기보다 9%포인트 줄었다.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가

구의 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 2분기(6%)이후 거의 2년만이다.

구입 예정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비중이 31%로 전분기의 48%에 비해 17%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토지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비중은 전분기 27%에서 34%로, 상가와 단독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비중도 각각 9%→13%, 3%→9%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구입 의사가 있는 소비자 비중은 5%로 전분기의 7%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해 지난 2000년 4분기(3%) 이후 6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가계의 현재생활형편CSI는 83으로 전분기(85)보다 소폭 하락하는 등 체감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지난해 1분

기(91)이후 5분기 연속 90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생활형편과 고용사정, 경기회복 등에 대한 전망은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6개월 동안에 대한 예상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CSI는 90→94, 경기전망CSI는 80→92, 고용사정CSI는 73→82로 각각 상승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태석 행정 개선심

광주은행 주총·이사회



주요인내며 지 1명의 사외이사는 28일 우리금융지주 주총이후 선임될 예정이다.

정태석(사진) 광주은행장이 행정으로 재선임됐다. 광주은행은 26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제48기 주총 및 이사회를 열고 최근 행정추진위에서 행정 후보로 추천된 정태석을 제10대 광주은행장으로 재선임했다.

박찬진·노관수·한충서 부행장과 박병규·김순철 부행장보 등 경영진 5명도 유임됐고 신임 감사로는 한복환 전 금감원 총무국실장을 선임했다. <인사명단 20면>

사외 이사진에는 최봉의 광주 YMCA 감사가 유임됐으며, 김종남 서남해안포럼 운영위원장(전 광주일보 편집국장)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새로 선임됐다. 대주

또 '3년 범위내에서 주총 결정에 따른다'는 상임이사 임기조항을 '3년 임기제'로 변경하는 등 일부 정관개정도 했다.

당기순익 901억원, 8.18%(주당 409원)의 주주배당률을 기록한 2006년 재무제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광주은행은 이와함께 영업력 강화를 위해 현행 '5분부 18개 부서'를 '7분부 20개 부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도아파트 선납 중도금도 보상

주택보증 범위 포함

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의 선납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약관을 대폭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보증한 아파트가 부도일 경우 공사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등의 보증이행 방법을 주택보증이 임의로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엔 분양대금을 환

급해주기로 했다.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민, 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이유가 발생하면 희망자에 한해 개별 환급해 준다. 특히 과거 아파트 부도시 주택보증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선납 입주금(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과 주택법상 기준공정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범위에 포함시켜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보상 등 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지역 중기제품 구입하세요”

26일 광주시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열린 'BUY-DAY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물러 전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북구청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생활용품 판매기획전 ▲중소기업 제품전으로 나눠 오는 4월 2일까지 계속된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전남 농산물 600억원어치 판다

농협연합사업단 을 목표

전남농협연합사업단이 올해 전남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600억원으로 정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전남농협연합사업단은 도단위사업단과 4개지역 연합사업단으로 나뉜다. 도단위 연합사업단은 광양 애호박·신안 시금치·영암 대봉·나주 이색 멜론·무안 양파 등에 대해 50억

원 매출을 추진하고, 또 수도권 농협 도매사업소와 연계해 마늘·양파·무·배추 등 250여종을 납품할 계획이다. 4개지역 연합사업단도 올해 300억원 판매에 나선다. 나주연합사업단은 관내 13개 진 조합이 참여해 배·멜론·참외·꽃고추·미나리 등을 취급하고 학교급식용으로 나주 및 광주권 학교에 쌀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도 공급한다.

담양연합은 5개 농협이 방울토마토·딸기·멜론을, 장성연합은 6개 농

협이 단감·배·사과·토마토를, 영광 연합은 5개 농협이 건고추·대파·부추를, 진도연합은 전 조합이 참여해 대파와 겨울배추를 판매한다.

전남농협은 시군 연합사업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나주=거점 APC(산지유통센터)신규확충, 학교급식 확대,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미나리 상품화 ▲담양=방울토마토 현대식 선별장 설치, 딸기 선별라인 확충, 친환경농산물 취급확대 등 사업을 전개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건축물 설계 감리 체계화”

노 경 윤 신임 전남건축사회장



“회원들의 업무신장과 권익보호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맞는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데 헌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신임 노경윤(53) 대한건축사협회 전남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각종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 시장개척에 나서서 한편 동호회 등 각종 친목행

사 유치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재해 주민이나 불우이

웃에 대한 봉사활동은 물론 각종 사회공익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무안 출신으로, 지난 1995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뒤(주)토마 건축사무소 대표, 전남건축사회 부회장, 목포건축사회 회장, 목포 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경희기자 choice@

세무조사 후 가산세 없이 납세 가능

내달 조기결정 신청제 도입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한 과세에 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고 과세결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받은 납세

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능한 빨리 사업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결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예고 통지내용대로 바로 세금이 확정되며 정식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된장·고추장 수출 물류비 지원

포장비 등 25% 수준

국산 콩을 원료로 사용해 수출하는 된장·고추장·간장 등 장류제품에도 수출물류비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과잉상태인 국산 콩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 콩을 사용한 장류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품목은 된장과 고추장·간장·청국장·춘장 등 모든 장류제

품이 해당되며, 포장비나 운송비 등 수출국가별 표준물류비의 25% 수준이 지원된다.

국산 장류제품의 수출규모는 2003년 1만2천423t, 1천769만2천달러에서 지난해 1만7천795t, 2천947만9천달러로 증가했다.

농림부는 최근 국산 장류제품이 가능성을 높이고 용도를 차별화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U best 땅선이 최고입니다! KDB advertisement with various product images and text.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AMS 교육 advertisement featuring a woman holding a certificate.